

친구들과 교실에서 수업…장애학생 꿈 이뤄진다

광주시교육청·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의료 지원 업무 협약
특수학교 장애학생에 전문 의료 서비스…교육 기회균등 실현 기대

A 특수학교 2학년 B군은 요즘 학교에 갈 생각에 마음이 부풀어 있다.
B군은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만, 개인적 질환으로 주기적인 경관영양 공급 등 의료조치가 필요해 고등학교 과정 1년 반 동안 집에서만 순회교육을 받아왔다. 졸업 전에 친구들과 함께 교실에서 수업을 들으며 학창시절 추억을 쌓는 것이 소원이었던 B군의 꿈은 2학기부터 실현될 예정이다.
B군의 사연을 들은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힘을 모아 지원 대책을 마련한 덕분이다.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과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최근 본청 상황실에서 이

정선 교육감, 이혜숙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내 장애학생 의료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특수학교 재학생 중에는 흡인, 경관영양, 간헐적 도뇨, 인공호흡기 관리 등으로 학교에서는 전문적 관리가 불가능해 정상적으로 학사일정을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시교육청은 우선 B군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파견한 전문 의

료인이 매일 학교를 방문해 5시간동안 수분 섭취, 유동식 주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추가로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발생하면 협의를 거쳐 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협약이 본격 시행되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온 장애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등 공교육의 본질적 가치인 ‘교육의 기회균등’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소명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다”며 “이번 협약이 교육활동 중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원하는 미래를 실현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가운데)이 최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진행한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마친 후 이혜숙 이사장 등과 협력을 다짐하고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전남 4개 직업계고, 미래 신산업 ‘기술인재 양성’

해남공고·전남보건고·목포중앙고·여수공고 교육부 재구조화 사업 선정

전남 직업계고등학교 4곳이 교육부 재구조화 사업에 선정돼 기술인재 양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부 직업계고등학교 재구조화 사업’에 도내 4개 직업계고 4개 학과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학교는 해남공업고(지역전략산업 1개 학과, 2학급), 전남보건고(학교자체전략 1개 학과, 1학급), 목포중앙고(학교자체전략 1개 학과, 2학급), 여수공업고(신산업·신기술 분야 1개 학과, 2학급) 등 총 4개 학과 7개 학급이다.
해남공업고는 지역전략산업 분야 특화를 목표로, 기존 전기과를 유지하면서도 교육과정을 대폭 개선해 신재생 에너지 관리 전문가, 전기차 충전

설비 스마트 유지보수 엔지니어, 전력시스템 엔지니어 등을 양성할 예정이다.
전남보건고는 기존 의료전자과를 ‘전기시스템 제어과’로 재구조화하고, 전가·전자 설비 유지보수와 자동제어시스템 제작 및 유지보수 인력을 양성해 첨단 전기산업 분야의 핵심 인재를 배출할 계획이다.
목포중앙고는 방송영상과를 ‘디지털영상과’로 개편해 특수효과 기술자, UX/UI 디자이너, 광고·영상 콘텐츠 제작자, 영상 제작 기사 등 디지털 미디어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여수공업고는 기존 드론공간정보과를 ‘공간정보보물리리티과’로 변경해 공간정보 영상처리원, 항

공사전측량기술자, 데이터분석가, 조경량비행장치조종자, 항공네트워크 엔지니어 등 미래 신기술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올해 선정된 4개 학교는 학급당 3억 7500만 원씩 총 26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원을 통해 교육과정 컨설팅, 실습실 환경 개선, 교사 역량 강화 연수 등 학과 재구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성아 전남도교육청 진로교육과장은 “이번 선정으로 도내 직업계고들이 지역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과 재구조화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도내 직업계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동강대 학생, 호주서 글로벌 현장학습

간호학과 2명 선발…16주간 전공 실무능력 신장



동강대학교 이민숙 총장(사진 오른쪽)이 올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에 참여하는 간호학과 정하연(사진 왼쪽)이혜준 씨와 허숙 국제교류원장을 격려하고 있다.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호주에서 외국어 실력과 현지 산업체 경력을 쌓으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한다.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이혜준·정하연(이상 2년)씨는 최근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2025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참여자로 선발됐다.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은 전국 전문대학 학생들에게 전공과 연계한 글로벌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해 전공 실무능력을 키우고 해외 취업을 지원한다.
동강대는 지난 2010년부터 ‘글로벌 현장학습’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고 2022년에는 참여 학생이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올 프로그램에 선발된 이혜준·정하연씨는 오는 30일 호주로 출국해 총 16주간 글로벌 역량을 키

운다.
이들은 시드니 Greenwich College에서 4주간 여학 교육을 받고 Royale Eastwood Medical Centre에서 12주 동안 산업체 현장 실습을 소화할 예정이다.
동강대 국제교류원은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국제교류원은 파견 학생들이 현지로 떠나기 전 60시간 이상의 사전교육을 받게 하고 학교 복귀 후에는 성과보고회를 마련해 생생한 체험담과 유용한 정보 등을 나누는 시간을 진행한다.
허숙 국제교류원장은 “글로벌 현장학습은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뿐 아니라 해외 취업의 기회까지 제공해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전남대 ‘국립대학육성 평가’ 최고등급

올해 사업비 269억 확보…유연한 학사 운영 등 성과

전남대학교(총장 이근배)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평가에서 교육혁신성과 S등급, 자체 성과관리 A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인센티브 167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69억 원을 확보했다.
전남대는 지역 정주 인력 확보를 위한 유연한 학사 운영, 학생 맞춤형 진로·취창업 프로그램의 운영 활성화, 시대 변화에 대응한 교육과정 및 수업 혁신, 자체 개발한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등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은 전국 37개 국립대학이 각 대학의 고유 역량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기획·추

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평가는 ‘혁신성과’와 ‘자체 성과관리’ 등 두 개 영역에서 이뤄졌다.
이근배 총장은 “전남대는 이번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개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며, 세계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 추진되는 ‘글로벌대학 30 사업’ 선정과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서 전남대가 호남권을 대표하는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성장해 지역 교육과 연구혁신을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 대학혁신 평가 ‘우수 A’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는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 성과평가에서 ‘우수 A등급’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2025-2027) 첫 해인 2025년 전국 상위권에 해당하는 성과평가 성적으로, 조선대는 60억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포함해 총 124억 원 규모의 재정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평가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대학의 혁신 전략, 운영 실적, 성과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조선대는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 노력, 다양한 학생성장지원 프로그램, 전공 교육과정 혁신, 성과관리 및 재정지원 체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초물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